

# 의원 128명 “대통령, 쌀 값 하락 입장 밝혀라”

### 45년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 농민 소득 감소 우려 서삼석, 기자회견·상임위 포함 5번 대책 마련 요구

45년 만의 최대 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업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촉구 성명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됐다. ‘쌀값 하락’과 관련한 ‘국회의 목소리’로 볼 때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란 점에서 전국 농민들의 분노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128명 국회의원의 연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첫 일선

로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 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특히 서 의원을 비롯한 128명의 국회의원들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돼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105%를 기록했던 쌀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감소해 하락국면에 있다”면서 “밀, 옥수수, 콩에 이어 쌀 산업마저 무너지면 국내 식량 자급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국 549개 쌀 수매 협회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4천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 한포대의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쌀값 하락’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처음 국회의원 128명의 연서명으로 시작됐으나 기자회견 도중 2명이 추가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34.7포대인 정곡 1t으로 환산하면 약 49만원이 줄어드는 셈인데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t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4천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

소가 예상된다. 128명의 국회의원들은 식량 위기와 쌀값 추가 폭락을 막고 농민의 삶은 보호하기 위해 ▲수확기에 구곡을 격리했던 20

16년 사례처럼 2021년산 쌀 최소 10만t 이상 추가 격리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및 쿠폰 발행 등 소비 확대 방안 마련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를 요청하는 대책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를 언제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인식과 대한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12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여야 지도부도 나서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농협 참석자로는 차상락 전국 RPC협의회회장, 양용호 광주·전남 RPC협의회회장, 문병만 전국 RPC협의회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김진수기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방문 일정을 마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사무총장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빌게이츠, 국회서 감염병 공조 역설

### 9년만에 국회서 연설...김진표 의장과 환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9년만에 국회에서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과 감염병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한국의 역할 확대에 관한 게이츠 이사장의 메시지를 경청했다.

다만 이날 연설에는 총 299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한 후 오전 10시 40분 연설을 위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입장했다.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은 게이츠 이사장이 입장하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김 의장의 환영사 이후 10시 44분께 시작한 게이츠 이사장의 연설은 9분간 이어졌다. 질은 남색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오른 게이츠 이사장은 왼손은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 오른손을 움직여가며 연설을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아직 기본적인 접중

을 받지 못한 전 세계 아이들이 2천5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경제·보건 분야 강국인 한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이 보건 분야 글로벌 펀드 조달 회의를 개최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이 한 지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일부 의원들은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용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연설을 마치자 참석 한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박수갈채를 보냈다. /연합뉴스

## 민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시’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타나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지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

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됐다.

당내 여러 인사들이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거듭 제기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김진수기자

## 與, 비대위 인선 완료...尹측근 주기환 등 9명 확정

### 권성동·성일중 당연직, 임태영·전주혜·정양석 합류

국민의힘이 1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총 8인의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 하루 뒤인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7일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비대위 체제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어서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한동

안 당 내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대위 출범에도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맞물린 비대위 활동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등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곧바로 소집된 상임전국위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대위원 8인의 임명안은 재적 인원 총 55명의 과반인 42명이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주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총정권 초선 임태영 의원과 여성 비례대표 출신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에 포함됐고, 서울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의 정양석 전 의원도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의 인사로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참여한다. 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